

2025 금융 위기 시그널: '통화정책 대분기' 시나리오 완벽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이드

목차

서론: 예측을 넘어 대응으로,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핵심 시나리오 심층 분석: '통화정책 대분기'의 작동 원리와 파급 경로

- 시나리오 정의: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란 무엇인가?
- 단계별 전개 과정: 나비효과는 어떻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가?
- 주요 영향 채널: 리스크는 어떤 경로로 타격을 주는가?

실행 가이드: 데이터 기반 '대분기' 시나리오 모니터링 보고서 구축

-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표 작성법
- 모니터링 시장 지표 표 작성법 (최소 5개)
- 사전 감지/임박 뉴스 키워드 표 작성법
-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표 작성법
- 신한은행 영향 분석 표 작성법
-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작성법

최종 산출물: '통화정책 대분기'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서론: 예측을 넘어 대응으로,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2025년 중반,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묘한 평온함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위시한 일부 중앙은행들은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을 임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고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정책적 간극은 새로운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긴장,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잠재된 신용위기 등 개별 리스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얹혀 상호작용하는 현대 금융 환경에서, 과거의 위기 패턴을 답습하는 전통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과 같은 역사적 사건(Historical Scenario)에 기반한 분석은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포착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금융 안정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 여건 긴축과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의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주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 2025년 4월 (가상)

따라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예측'의 영역을 넘어 '대응'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충격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파고드는지

시뮬레이션하는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 분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 중 하나인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 '**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가상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금융기관(예: 신한은행)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법과 데이터 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핵심 시나리오 심층 분석: '통화정책 대분기'의 작동 원리와 파급 경로

본 섹션은 '통화정책 대분기' 시나리오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는 이어질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의 논리적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시나리오 정의: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란 무엇인가?

'통화정책 대분기' 시나리오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간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조절의 차원을 넘어, 한쪽은 긴축을 지속하거나 고려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펼치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심화된 형태입니다.

- 핵심 동인 (Key Driver):** 시나리오의 근본적인 동력은 미국과 여타 선진국 경제의 편디멘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 시장과 끈질긴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추가 긴축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로존과 영국 등은 제조업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 본질적 리스크:** 이 시나리오의 진정한 위험은 단순한 금리 격차 확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거대한 자금의 재배치(Great Capital Rotation)'를 축발한다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찾아 유로존 및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미국 달러 자산으로 급격히 이동시킵니다. 이는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이론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중심, 워싱턴 D.C.의 매리너 S. 에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건물. 연준의 결정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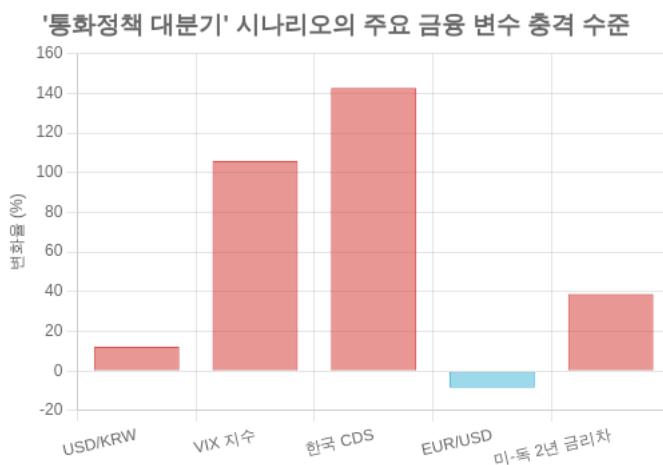
2. 단계별 전개 과정: 나비효과는 어떻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가?

정책의 탈동조화라는 작은 균열은 아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기의 전이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 1단계 (정책 분기 심화):** 모든 것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정책 금리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의 2년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과거 위기 수준인 250bp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

화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더 높게, 더 오래(Higher-for-Longer)' 기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고착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는 신호탄입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시작됩니다.

2. 2단계 (자금 흐름 급변): 확대된 금리 차익을 노린 대규모 자본이 유로존 및 취약 신흥시장을 이탈하여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Capital Flight to US)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하며, 자본 유출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EUR/USD 환율이 패리티(1.00)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상징적인 임계점이 무너지며 시장의 공포 심리는 극에 달합니다.
3. 3단계 (금융 스트레스 전이): 위기는 '달러 유동성 경색(Dollar Squeeze)'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자, 달러 부채를 많이 보유한 비미국계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유럽계 은행들은 외화자금 조달 비용(Funding Cost)이 급증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신용 시장 전체의 경색과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단계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경고했듯, 급격한 자본 이동은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켜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주요 영향 채널: 리스크는 어떤 경로로 타격을 주는가?

이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적인 리스크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합니다. 금융기관은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복합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시장 리스크 (Market Risk):**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충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외화 자산 및 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를 급변시키고, 이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환율 변동성은 키코(KIKO) 사태에서 경험했듯 복잡한 파생상품 포지션의 가치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동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시장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외화(특히 USD) 자금 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통화 스왑(CRS) 시장이나 외환 스왑(FX Swap) 시장이 마비되거나 비정상적인 스프레드가 발생하면서, 평소에는 쉽게 조달 가능했던 외화 자금의 비용(Funding Cost)이 급등합니다. 이는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특히 외화 LCR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규제 기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리스크 (Credit Risk):** 위기의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급등한 환율은 원자재나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급증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달러화 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이중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무불이행(Default)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실행 가이드: 데이터 기반 '대분기' 시나리오 모니터링 보고서 구축

분석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리스크를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사용자가 제공한 엑셀 파일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표 작성법

보고서의 첫 단추는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분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Executive Summary' 역할을 합니다.

- 작성 지침:

- Scenario_ID: SC001과 같이 시나리오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Scenario_Name: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와 글로벌 자금흐름 급변'과 같이 시나리오의 핵심 특징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Description: 앞서 '핵심 시나리오 심층 분석' 섹션에서 다룬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합니다. '발생 배경'에는 Fed와 ECB의 정책 탈동조화라는 핵심 동인을, '단계별 전개 흐름'에는 '정책 분기 심화 → 자금 흐름 급변 → 금융 스트레스 전이'의 3단계 경로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표 작성법 (최소 5개)

시나리오의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핵심 계량 지표(KPI)를 설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관리 기준(임계치)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감(感)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 작성 지침:

- 지표 선정: 참고 자료의 '모니터링 지표'와 '금융 변수 충격 수준' 표에서 시나리오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를 최소 5개 이상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분기의 직접적 결과인 '미-독 2년물 국채 금리 차', 자본 유출의 결과인 'USD/KRW 환율', 달러 유동성 경색을 나타내는 'FRA-OIS 스프레드', 시장 공포를 측정하는 'VIX 지수', 그리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한국 CDS 프리미엄' 등이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컬럼 채우기:
 - Indicator_ID: 각 지표에 IND001, IND002... 와 같은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 Bloomberg_Ticker: 데이터 자동 수집을 위해 정확한 티커(예: G2USG2YR Index)를 기입합니다.
 - Threshold_High: 참고 자료의 '위험 임계치(Critical Threshold)'나 '시나리오 값(Scenario Value)'을 기준으로, 이 수준을 넘어서면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상방 임계치를 설정합니다.
 - Current_Value: 보고서 작성 시점의 현재 값을 기입합니다.
 - Probability: 해당 지표가 설정된 임계치를 돌파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계량 모델(예: VaR,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 판단(Expert Judgment)에 기반한 정성적 추정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감지/임박 뉴스 키워드 표 작성법

정량적 지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반영하지만, 시장의 심리나 내러티브 변화는 정성적 정보를 통해 더 빨리 포착될 수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모니터링은 이러한 정성적 정보를 시스템화하는 과정입니다.

- 작성 지침:

- Phase 구분: 시나리오의 진행 단계를 'Yellow(사전 감지)'와 'Red(위험 임박)'로 구분합니다.
- 키워드 설정:
 - Phase 'Yellow': 위기의 초기 징후, 즉 1단계 '정책 분기 심화' 단계에서 주로 등장할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예: policy divergence, Fed-ECB split, sticky inflation, capital

flight)

- **Phase 'Red':** 위기가 본격화되는 2, 3단계 '자금 흐름 급변' 및 '금융 스트레스 전이' 국면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예: dollar squeeze, funding cost surge, EM currency crisis, market panic)
- **Weight 부여:** 각 키워드가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에 시사하는 중요도를 0에서 1 사이의 가중치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dollar squeeze'는 'policy divergence'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 신호이므로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집니다.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표 작성법

이 단계는 각 모니터링 지표가 시나리오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향후 종합적인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 **작성 지침:**

- **Weight:** 해당 지표가 시나리오의 전개와 결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0~1 사이 값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독 금리차'는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0.9와 같이 매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Correlation_Coeff:** 시나리오가 심화될 때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과거 데이터나 경제 이론에 기반하여 -1에서 1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가 심화될수록 USD/KRW 환율은 상승하므로 양(+)의 상관계수를, EUR/USD 환율은 하락하므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집니다.
- **Volatility_Impact(%):**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해당 지표의 변동성이 기준일 대비 얼마나 증폭될지를 추정하여 기입합니다. 이는 참고 자료의 '변화 폭(Change)'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VIX 지수는 기준일 17에서 시나리오 값 35로 +105.9% 변화)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표 작성법

거시 경제 시나리오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리스크 관리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단계입니다. 이는 'What if' 분석을 통해 잠재적 손실 규모를 가늠하고 대응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작성 지침:**

- **Metric 선정:** 시나리오의 핵심 영향 채널(시장, 유동성, 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은행의 핵심 재무 지표를 선정합니다.
 - **수익성 영향:** 'Funding Cost 급등'은 은행의 조달 비용과 직결되므로 '순이자마진(NIM)'을 핵심 지표로 설정합니다.
 - **유동성 영향:** '달러 유동성 확보 난항'은 외화 유동성 관리에 치명적이므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을 선정합니다.
 - **추가 지표:** '외화채권 포트폴리오 평가손익', '수입기업 부실여신(NPL) 비율' 등도 추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mpact_Level(1~5) 부여:** 시나리오가 해당 재무 지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를 1(경미)부터 5(위기)까지의 척도로 계량화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유동성 경색'은 은행의 핵심 기능인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므로 NIM과 외화 LCR에 미치는 영향은 4단계(심각)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작성법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Actionable)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의 최종 단계입니다.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 핵심입니다.

- **작성 지침:**

- Overall Probability(%): 종합적인 시나리오 발생 확률을 산출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모니터링 지표의 돌파 확률(Probability)을 해당 지표의 시나리오 연관도(Weight)로 가중 평균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지표의 신호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Overall Risk Level: 산출된 종합 확률과 예상되는 충격의 강도를 고려하여, 전체 리스크 수준을 1~5단계로 최종 결정합니다.
- 대응 권고: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담당 부서가 즉시 검토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예) "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 비중을 현 5%에서 3%로 축소하고, 확보된 재원은 만기 2년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 NIM 방어: (예) "전체 외화 변동금리부 부채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금리 스왑(IRS Pay Fixed) 계약을 체결하여 금리 상승 리스크 해지."
 - 자금조달 다변화: (예) "3분기 내 5억 달러 규모의 포모사본드(Formosa Bond) 발행을 추진하여 장기 외화자금 선제적 확보."

최종 산출물: '통화정책 대분기'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최종 모니터링 보고서 예시입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식별, 분석, 대응 전략 수립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와 글로벌 자금흐름 급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일: 2025-07-22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항목	내용
Scenario_ID	SC001
Scenario_Name	통화정책 대분기(Great Divergence)와 글로벌 자금흐름 급변
Description	<p>[발생 배경]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Fed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유로존 등은 경기 침체 우려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극단적 정책 틸동조화 상황을 가정함.</p> <p>[단계별 전개 흐름]</p> <p>1단계 (정책 분기 심화): 미·유로존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시장 예상을 넘어 급격히 확대.</p> <p>2단계 (자금흐름 급변): 안전자산 및 고금리 차익을 노린 자금이 미국으로 급격히 쓸리며 달러 초강세 및 신흥국 통화 가치 폭락 유발.</p> <p>3단계 (금융 스트레스 전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Dollar Squeeze)이 발생하며,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여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확산.</p>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01	미-독 2년물 국채 금리차	G2USG2YR Index	Daily	220 bps	250 bps	5.8	180 bps
IND002	USD/KRW 환율	USDKRW Curncy	10min	1,450	1,550	8.2	1,380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03	글로벌 달러 유동성 지표 (FRA-OIS)	US0003M Index	Daily	25 bps	40 bps	15.1	10 bps
IND004	VIX 변동성 지수	VIX Index	Daily	25	35	20.5	17
IND005	한국 CDS 프리미엄 (5년)	CSKR5 Curncy	Daily	60 bps	85 bps	12.3	35 bps
IND006	EUR/USD 환율	EURUSD Curncy	10min	1.00	0.98	6.5	1.07

3.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1	IND001	policy divergence, Fed-ECB split, 금리차 확대	Yellow	0.8
SC001	IND002	capital flight, strong dollar, 자본 유출	Yellow	0.7
SC001	IND006	parity broken, 유로화 약세, 환율 전쟁	Yellow	0.7
SC001	IND003	dollar squeeze, funding cost, 유동성 경색	Red	0.9
SC001	IND004	risk-off, market panic, 안전자산 선호	Red	0.8
SC001	IND005	sovereign risk, 국가 부도 위험, 외화부채	Red	0.9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01	IND001	0.9	0.85	38.9
SC001	IND002	0.8	0.75	12.3
SC001	IND003	0.9	0.80	300.0
SC001	IND004	0.7	0.70	105.9
SC001	IND005	0.8	0.78	142.8
SC001	IND006	0.7	-0.82	8.4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유동성')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1~5)
BM001	순이자마진(NIM, %)	1.55%	1.50%	1.40%	4 (심각)
BM00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110%	105%	90%	4 (심각)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1-5)
BM003	외화채권 포트폴리오 평가손익(%)	-1.5%	-2.5%	-5.0%	3 (경계)
BM004	수입기업 부실여신(NPL) 비율(%)	0.4%	0.5%	0.8%	3 (경계)

*Impact_Level 정의: 1(경미) → 2(주의) → 3(경계) → 4(심각) → 5(위기)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종합 발생 가능성 (Overall Probability)	31.5% (향후 12개월 내, 지표별 Probability를 Weight로 가중평균)
종합 리스크 레벨 (Overall Risk Level)	Level 4 (심각)
핵심 요약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 심화로 인한 급격한 달러 강세 및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은 신한은행의 외화 조달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NIM을 악화시키고, 외화 LCR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대응 권고 (Actionable Recommendations)	<p>1. 포트폴리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신흥국 외화채권 익스포저 비중 축소 및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우량자산 비중 확대 검토. (중장기)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재점검 및 헤지 전략 강화. <p>2. 수익성(NIM) 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금리 스왑(IRS) 등을 활용하여 변동금리 외화 부채의 이자를 리스크 해지. (중장기) 외화 대출 가산금리 체계 재점검 및 리스크 프리미엄 현실화. <p>3. 자금조달 다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단기 외화 차입 의존도를 줄이고,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 포모사본드 등 장기 외화자금 선제적 확보 추진. (중장기)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왑 라인 등 비상 조달 계획 실효성 점검 및 강화.

참고 자료

- [1] market_risk_stress_test_scenarios_2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1/6298450475799880160/1947441507058294784_3fb66c77cb39dd7e79e9582ed4f3fd8e.pdf
- [2] 1.indicator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0_fd2306e023350736e627e825c8cef61.xlsx
- [3] 4.scenario_indicator_link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3_2ddf1c15505bfd578b7a5296d983313f.xlsx